논어 13편 자로 15장 · 원문·풀이

定公問：「一言而可以興邦，有諸？」孔子對曰：「言不可以若是其幾也！人之言曰：『爲君難，爲臣不易』。如知爲君之難也，不幾乎一言而興邦乎？」曰：「一言而喪邦，有諸？」孔子對曰：「言不可以若是其幾也！人之言曰：『予無樂乎爲君，唯其言而莫予違也。』如其善而莫之違也，不亦善乎？如不善而莫之違也，不幾乎一言而喪邦乎？」

독음 · 정공문 일언이가이흥방 유저 공자대왈 언불가이약시기기야 인지언왈 위군난 위신불이 여지위군지난야 불기호일언이흥방호 왈 일언이상방 유저 공자대왈 언불가이약시기기야 인지언왈 여무락호위군 유기언이막여위야 여기선이막지위야 불역선호 여불선이막지위야 불기호일언이상방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임금 노릇의 어려움을 깨닫는 한마디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. 반대로 자기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즐기면 잘못을 고칠 수 없어 나라를 잃을 수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定 정할 정 정 / 公 공변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一 한 일 일

言 말씀 언 언 / 而 말이을 이 / 可 옳을 가 가 / 以 써 이 이

興 일 흥 흥 / 邦 나라 방 방 / 有 있을 유 / 諸 모든 제 제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對 마주볼 대 대 / 曰 가로 왈

不 아닐 불 / 若 같을 약 약 / 是 이 시 시 / 其 그 기

幾 기미 기 기 / 也 어조사 야 / 人 사람 인 / 之 갈 지

爲 할 위 / 君 임금 군 / 難 어려울 난 난 / 臣 신하 신 신

易 바꿀 역 역 / 如 같을 여 여 / 知 알 지 / 乎 어조사 호

喪 죽을 상 상 / 予 자기 여 여 / 無 없을 무 무 / 樂 즐길 락

唯 오직 유 유 / 莫 없을 막 막 / 違 어길 위 위 / 善 착할 선 선

亦 또 역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